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06호 현대불교
2008년 11월 19일(음력 10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여러분이 계시는 까닭에 부처님은 여러분 곁에 제십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불교가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절간에만 불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잠자고 똥 누고 이러한 자체가 그대로 불교입니다. 그런데 모두 40분이고 한 시간이고 앉아서 좌선을 하려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좌선하는 게 참선인 줄 알아요. 왜 참선이 못 되느냐 하면 앉았다 일어나면 참선하는 게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앉는 거 서는 거 자는 거 일하는 거, 즉 말하자면 좌선 입선 와선 행선 이것이 몽땅 다 참선입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시간이 나면 좀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그냥 눕기도 하고, 이러한 게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참선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앉았다 눕고, 눕다가 앉고, 서다가 일하고 이러한 게 다 참선이니 그냥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이 그냥 참선이죠. 마음은 풍자에 풍지를 말고 들떠서 망상에 흠뻑 그냥 넘어가는데 뭘만 앉혀 놓으면 될 겁니까? 마음이 안정돼야 그게 좌선입니다. 네? 서나 앉으나 일하나 마음이 안정된다면 그것이 바로 좌선이며 참선입니다.

그냥 우리 생활이 중요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다면 무효입니다. 부처가 어디 있고 중생이 어딴 겁니까? 미생물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여러분 오장 육부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있지 않습니까. 증명하느라고 벌써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에서부터 인연에 따라서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사람으로까지 등장을 하게 된 것은 자꾸자꾸 화해서 나뉘면서 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죠. 짐승으로 화해서 쫓기다가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기니까 도무지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거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기니까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선 그냥 잡아먹혔죠. 그래서 그다음에 태어날 때는 앞다리와 뒷다리가 거 반거반 같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마음의 진화입니다!

임신을 했을 때 태교를 중요시하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이미 낳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전력이 전달되듯이, 이미 낳은 어린애하고도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거든요. 이 방에 전구가 이렇게 많고 모습은 다 각자이지만 전력은 다 똑같으니까 여기서 스위치를 올리면 저기까지도 다 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

내 내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었다거나 친구가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실험을 하는 공부니까 거기다 마음을 주든가 내 마음이다가 넣든가 해서 맡겨 놓고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실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아, 전력이 들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의 스위치를 누르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이 다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다 밝게 살 수 있구나!'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알고 그래야지 말로 해서 그게 알아

그러면 오늘 진주에서는 처음 개원식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꼭 알아둬야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안으로 볼 줄 아는 거, 심안으로 들을 줄 아는 거, 심안으로 과거에 어떻게 왔는가 아는 거, 심안으로 남의 속을 다 아는 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거, 이런 것을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신통을 다 해도 도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런 왜냐하면 속명통을 지금 현실의 컴퓨터라고 한다면,

전하게 돌아가죠. 허허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좋은 겁니다.

그러니 속명통을 지금 말로 심성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지금 그 컴퓨터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장막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팔자 운명을 누가 갖다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도 어디든지 갔다 올 수 있죠.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 앉아서 집에 좀 갔다 온다 해도 한 잘나에 갔다 오실 수 있지요? 지금 집에 갔다가 오실 수 있겠지요? 허허허... (대중 박수) 그렇게 마음이 지구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라는 것이 버스라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지금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도 여러분이 마음을 그렇게 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오장 육부의 모든 중생들이 지금 여러분이 부산을 가는지 진주에 왔는지 그거 모를 겁니다. 이게 참 아주 묘한 도리죠! 여러분이 움직이고 다니게끔 속에서 모두 작용은 해 주지 않는 자기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그걸 몰라요. 지구에 붙어서 살면서도 지금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우리 중생들은 몰라요. 지금 인간에게 붙어서 사는 것인데도 인간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또 몰라요.

그러니 모두가, 삼합이 사부주가 맞아야 같이 혼합해서 돌아가는 걸 알게 되죠. '이런 것이 시공을 초월했다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백 개라도 하나로 할 수도 있고, 천 개라도 하나로 할 수가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바로 평등공법이며 황궁공법이며 수레공법이구나!' 이런 도리를 진주 여러분이 모두 공부를 해서 하나하나 내 몸으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체험을 하고 아신다면, 헬리 헬성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구 동네에 와서 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내가 그 헬리 헬성이 될 줄 알 겁니다.

구렁이가 사람들 못 다니게 길을 가로질러 걸쳐져 있으니까 달마 대사가 구렁이 속으로 들어가서 구렁이를 끌어다가 탄 데 갔다 놓고 다시 오듯이 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현명한 도리입니까? 그러니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도리를 여러분은 꼭 배우셔야 될 겁니다. 이런 인연 만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천 년 만에 한번 만나기도 어렵다는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마음의 구조도 바꿀 수 있고 체질도 바꿀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있고 정신계의 대권,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좀 해 보시죠. 이해가 안 가시는 점도 많겠습니까마는 처음부터 배우르지 않습니다. 내가 한 손가락 한 손가락 떠 놓고 그래서 한 밥그릇이 다 비워져야만 배가 부른 것을 알게

26면으로 계속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장면에 비유한다면, 여죄객 자장면을 보지도 못했고 맛도 이름도 모르는데 자장면을 찾고 어찌고 할 길이 없는 거죠. 아주 모르니까요. 이름도 맛도, 또 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먹어 보지 않은 거는 찾아지지도 않죠? 먹어 봐서 그게 맛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아, 우리 그것 좀 해 먹어!' 그러든가 '우리 그것 좀 먹으러 가자!' 이러지만 먹어 보지 않은 거는 찾아지지도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체험을 하셔야죠. 모두가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속에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창조력을 기르는 것이요, 창조를 해내는 법을 아는 것이요, 생활이 그냥 과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에 나오는데 그것을 다 거기가 일임하고 맡겨야 다시 입력이 됨으로써 앞서의 입력된 거는 없어지죠? 그렇지? 그것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업보로 인해서, 유전성으로 인해서, 영계성으로 인해서, 세균성으로 인해서 오는 그 애고를 다 무너지게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건 왜? 거기다 입력을 다시 해 버리니까요! 나오는 데다가 되맡겨 놓으니까, 입력이 되니까 앞서 입력이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속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다 편안해지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니가 가정도 화목해지고, 가정이 화목하니가 생활이 잘되고, 생활이 잘되니까 사회도 마음이 건

하고 그 자리에서 입력이 돼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방지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건데 지금은 전부 기록으로다가 가르치고 있으니 자기 속에서, 이게 오신통이거든요. 어떻게 오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신통을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컵을 들어 보시며) 지금 이것을 똑마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내가 똑마르면 먹을 수도 있어야만이 바로 누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신통 그릇 안에서, 항아리 안에서 딱 벗어나서 보면 자유롭게 항아리를 굴릴 수가 있죠. 항아리 속에서는 항아리를 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속에서 내가 벗어나야 여기 앉아서

2008년 불교교육능력평가를 위한

제7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실시 공고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기본 소양, 불교교리의 이해, 사회봉사 참여의식, 불자로서의 가치관 등에 대하여 불교교육능력 평가고시를 시행하여 실천불교를 위한 정법포교의 선구자역할을 할 불교포교사를 배출하고자 제 7회 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함

포교사고시 응시대상

· 연합회에 등록된 교양대학(교육과정 1년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시험일시

· 2008년 12월 7일(일) 오후 1시 ~ 오후 6시
(필기시험 및 면접)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08년 10월 20일(월) ~ 11월 20일(목)

응시장소

· 박문각행정고시학원
(서울 종로구 조계사입구, 제일은행 본점 뒷편)

포교사 고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성적증명서
· 수계첩 사본 · 사진 4매(반명함판)

응시료

· 응시료 60,000원
(국민은행 023501-04-131317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접수방법

· 학교별 일괄접수

접수유형

· 서류전형 → 필기시험 및 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최종합격자연수 및 품수

합격자발표

· 2009년 1월 10일(개별 및 학교별 통지)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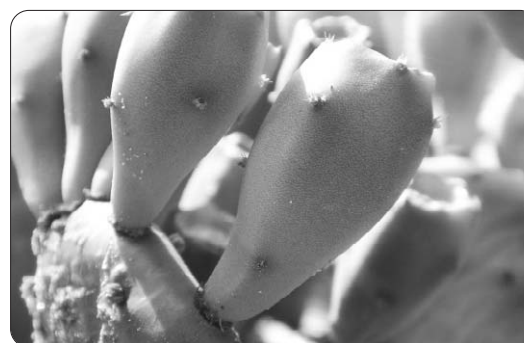
· 연합회 사무국 TEL 02)734-9595

*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 신규가입할 교육단체 및 교양 대학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4-9595 FAX 02)732-1207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